

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 잠 못드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진다. 2015년 400억원 규모로 커진 수면시장을 제약회사들이 블루오션으로 보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열대야에 숙면관리제 봇물

5년새 불면증으로 병원행 76% 늘어 '서카딘' '독세' '레돌민' 등 인기 질주

갈수록 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잠 못드는 사람이 많다. 살기가 빡빡해 지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호 소하기도 하고 한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잠을 못자는 사람 이 많아지면서 불면증 치료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 만 제약업계는 2007년 170억원에서 2015년 400억원 규모로 커졌다고 본다. 가 개발한 것으로 멜라토닌 성분의 약 7시간 동안 유지시켜 준다. 다음날 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해 50만5685명이었다. 2010년 28만9500명보다 76%나 늘었다. 병원 을 가지 않는 숨겨진 환자까지 생각한 다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추측된 다. '수면 산업'의 하나인 불면제 시장 을 확장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수면의 질과 안전성을 높인 비향정신성 불면증 치료제를 출시해왔다.

최근 2년 사이 출신된 제품은 건일제 약의 '서카딘'과 CJ헬스케어의 '사일레 노'였다.

물이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발하는 물 질로 잘 알려졌다. CJ헬스케어는 미국 소맥슨사가 개발한 비향정신성 불면증 치료제 '사일레노'를 지난해 내놓았다. 블면증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 상시험에서 7~8시간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도 수면시장에 뛰어들어 최근 비향정신성 불면증치료제 '독세' 를 출시했다. 기존 의 졸피뎀 성분 불 면증 치료제보다는 의존성이 없는 제 품이다. 수면유지가 어려운 불면증 치 료에 효과적이다. 수면중 깨는 시간 및 '서카딘'은 이스라엘 제약사 뉴림사 횟수를 감소시키며, 수면시간을 약 벽에 일찍 깨는 조기각성 증상 완화에

위의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만 그럴 필요가 없는 일반의약품 불면 증 치료제도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2월 길초근과 호프 추출물을 주성분으 로 한 '레돌민'을 출시했다.

수면의 질을 높여 지속적인 수면관리 를 도와주는 숙면관리제라는 위치선정 을 했다. 생약성분으로 인체에서 분비 되는 수면유도물질 아데노신, 멜라토닌 조절로 본래 인체의 수면 사이클 및 수 면구조를 정상화시켜 불면증을 개선시 켜준다고 자랑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여름에도 조심해야 하는 '전립선염' 면역기능 저하로 전립선염 초래할수도

전립선염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 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에도 발 생할 수 있다.

냉방이 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심 해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면역 기능의 문제로 전립선염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다.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활발하게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전립 선에 생기는 염증이 전립선염이다. 통 증과 불쾌감,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임상 증상에 시달린다. 통증은 음낭, 회음부, 고환, 성기 바깥쪽까지 으로 신체를 치료하고 질환의 원인을 나타난다.

전립선염은 요도에 영향을 끼쳐 배뇨 장애도 유발한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지료와 약침치료가 있다. 탕약은 설진,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조루 와 발기부전의 성기능장애도 생긴다. 조루는 염증이 사정관을 자극해 나타난 약재를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배뇨기능 다. 발기부전은 전립선 주변조직의 압 박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액과 신경이 선실질장기 및 골반 내의 화농성 염증

막혀 발생한다. 전립선염 환자들은 오 한 발열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증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이 잦다는 것 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 증세도 겪는다. 일시적인 증상 개선보 다는 질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 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다.

'한방치료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 리 몸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체적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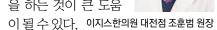
대표적인 한방치료 방법으로는 탕약 술, 커피, 담배는 최대 복진, 맥진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발병 원인, 증상 등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장애와 통증 치료에 도움을 주고 전립

을 줄여줄 수 있다. 개인별 맞춤 처방을 통해 균형이 깨진 면역력 기능의 안정 을 찾게 해준다.

약침은 자연에서 추출한 봉독이나 산 삼과 다양한 한약재를 조제해 만든 성분 이 들어간 침이다. 약침을 국소 부위 및 주요 경혈자리에 놓으면 과민해진 감각 과 통증을 완화하고 항세균, 향진균 효과 전립선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를 볼 수 있다. 혈류개선 및 원기회복을 도와 생체방어력을 향상시켜준다.

전립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좋다. 충분한 휴식과 스 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자제하며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한 다. 취침 전 5~10분 정도 좌욕이나 반신욕 을 하는 것이 큰 도움



"진드기·모기 퇴치 문제없어" 동국제약, 국립공원관리공단 후원

2009년부터 해마다 '국립공원 산행안 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동국제약(대표 이사 이영욱)이 올해도 국립공원관리공 단에 진드기, 모기 기피제 '디펜스벅스' 를 후원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를 방문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안내' 책자 와 함께 진드기, 모기 기피제 '디펜스벅 스'와 '디펜스벅스 더블'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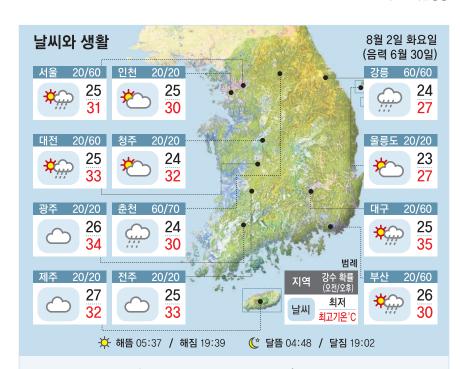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시즌에 맞 춰 이번에 전달된 제품들은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립공원사무 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디펜스벅스'와 '디펜스벅스 더블'은 이카리딘 성분의 진 드기, 모기 기피제다. 해충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아 전세계에서 DEET 대체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기뿐만 아니라 털진드기와 작은소참진드기(야 생 살인진드기)기피제로도 공식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7월30일 하루 8만4936식 생산(역대 최고 기록) ● 메뉴:핫 밀 1000여종, 콜드 밀 230여종, 베이커리 140여종 등 1400여 종류 운영

항공여행에서 최고의 즐거움은 뭐니뭐니해도 기내식. 여름휴가 최대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이 7월30일 8만4936식으로 1969년 기내식 생산 이후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에 따르면 2015년 8월1일 기록했던 7만7339 식 보다 7597인분이 더 많은 수치다. 대한항공의 기내식사업 매출은 243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2%다

자료: 대한항공



산 날씨		TAA.	바다 날씨			미세 먼지		411-		
북한산	^	25/31	인천송도	*	25/30	서울	29	좋음		
설악산	^	22/27	제부도	*	24/30	부산	52	보통		
오대산		20/29	경포대		23/28	대구	33	보통		
계룡산	*	24/33	속초	<u>^</u>	23/27	인천	26	좋음		
속리산	^	23/31	대천	*	24/32	광주	25	좋음		
소백산	^	22/32	안면도 꽃지	*	24/32	대전	32	보통		
팔공산		25/33	변산반도	*	25/32	울산	47	보통		
지리산	^	23/34	거문도	*	25/32	경기	39	보통		
덕유산	<u></u>	22/33	칠포	*	25/29	강원	30	좋음		
내장산	*	25/33	해운대	<u></u>	26/31	충북	19	좋음		
한라산	<u></u>	20/25	제주도	8	26/31	경남	47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3일(수) 서울·경기 △ 25/32 영동 △ 24/31 충청 △ 26/33 호남 △ 26/34 영남 △ 24/31 제주 △ 27/32 4일(목) 서울·경기 24/32 영동 24/32 충청 24/33 호남 25/32 영남 23/30 제주 26/31

L	至	रेड	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국장 광고국장	연제호 이승욱	스포츠1부	02 2020 1041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인쇄 동 0	아일보사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u>-</u>			_



1회복용 5일지속/캅셀 천연성분 (아르젠 U.S.A)

한통30정 효과 100% 카드 가 (최저가)

농협 791-02-067290 미양 010-7600-4116